

어려서는 사람은 이익을 따르고 분에없는 명예와 권세를 구해 집안에 있으면 침투를 일삼고 항상 남에게 공양을 바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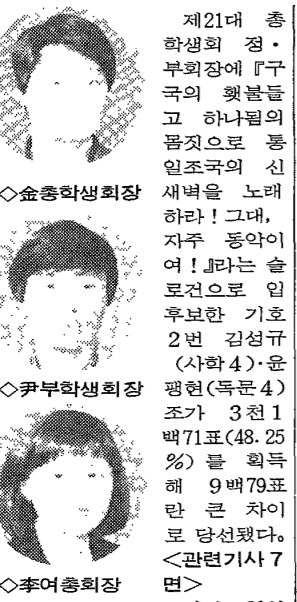
발행인: 이종영, 편집인: 김장영, 발행처: 동국대학교, 서울시 중구 필동 3가26(☎267-8577),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41-4132)

제 1017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단-10, 1955.10.13 제 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89년(단기 4322년) 4월 5일(수요일) [1]

## 총학 정·부회장 김성규·윤평현 취임

### 투표율 69% 총여학생회장엔 이정옥양 당선

### 9백 79표차 압승... 오는 6일 출범식



제21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국국의 햇볕을 고 하나림의 품으로 통일조국의 신새벽을 노래하라!』고, 자주 음악이여! 라는 슬로건으로 입후보한 기호 2번 김성규(사학 4)·윤평현(독문 4) 조가 3천 1백 71표(48.25%)를 획득해 9백 79표차 큰 차이로 당선됐다. <관전기사 7면>



21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학자부임수와 통일의 과제물인고 새로 출범한다. 이었고, 혁명과 운동의 순수성이 이진이지 결코 기호 2번이 이진이지 아니다. 『1만화우들과 대동단결로 민족통일 단결의 기수인 21대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1대 총학생회 출범식』은 오는 6일 갖는다. 제5대 총여학생회 정·부회장에 『가자! 혁신하는 총여학생회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단독입후보 했던 이정옥(국문 4)·김인숙(수교 4) 조가 지난 30일 90.6%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 재단전입금 5억 책정

### 총장·이사장 주도 「수입사업추진위」 구성키로

재단이사회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黃珍熙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7명이 참석하여 학자재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생들의 「재단활성화 추진위원회」 제안에 부응해 수입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9년내에 전입금을 5억 원으로 책정했다. 수입사업추진위원회는 학이사들 중심으로 이사장이 위촉, 임원을 구성하고, 총장과 이사장에게 사업을 일임하기로 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창구도 마련했다. 또한 수입사업추진위는 이사회에 하부구조에 속하게 되었다.

재단예산 2천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해 원정사 4백 50만 원 중 3백만 원은, 온건산 2백 50만 원 중 2백만 원을 교육용자산에서 수익용자산으로 돌리는 등 곧바로 사업추진에 돌입한다. 공대도서관 이전, 前학군 단건물로 학교당국은 지난 1일부터 현재 공대건물 지하에 위치한 공대 도서관을 前학군 단 건물에 이전공사 중이다. 이번엔 이전될 공대 도서관 예산은 2백 2십여 만 원이며, 규모는 2백석으로 지난 달 16일 공대학생회의 요청

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건물별수는 47명이며 오는 10일 완공될 예정이다. 등록률 86% 7일 추가 마감. 지난 31일까지 총 등록예정자수인 1만 2천 7백 명 중 1만 8백 60명이 등록, 86%의 등록률을 보였다. 학교당국은 이번 학기의 등록이 늦어짐에 따라 지난 3일 학자재정의실에서 오는 7일까지 국민은행 총무부지점과 조흥은행 중로지점에서 등록금을 추가접수하기로 했다.

## 개교 90주년 기념 각종사업 추진

### 불교종합병원건립 - 「동국발전후원회」 구성·모금전개 포함

「개교 90주년 동국발전을 위한 추진사업」은 지난날 31일 오후 3시 기획위원회(위원장=李鍾熙)에서 심의한 후 사업내용을 정리, 학교당국이 세부사업계획 수립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 「개교 90주년을 향한 동국발전추진사업회(가칭)」를 구성, 학교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기획하는 기능을 수행하게되며 동국콘벤션센터(가칭)건립, 국제학술회의 개최, 불교종합병원 건립(수도권지역) 등국비내외의 편찬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추진사업회의 각종 기념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수립 및 추진을 위해 「동국발전후원회」를 구성해 재학생, 이사, 동문, 불교계인사, 학부모임 법동맹인을 대상으로 80여모금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동국발전의 밤(개교 83주년 기념간담)」을 오는 5월 6일 李鍾熙 총장, 黃珍熙 이사장 등 학교내의 각계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문호텔에서 있을 본선상에서 공식 발표된다.

지못해 휴강상태로 머물러 있던 「과학철학」이 지난 3일부터 공용현강사의 진행으로 정상수업에 들어갔다. (본지 1016호 7면 참조) 당초 물리학과교과위원회의 교추초빙권이 중앙교과위원회를 거쳐 중앙교과위원회의는 지난달 31일 김병욱(교육학) 교수, 김주환(지리교육) 교수 및 오세민(불교 4) 중앙교과위원장을 중앙교과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갖고 「과학과 철학」을 철학과교과위원회의로 결정했다. 「과학과 철학」이 철학과로 넘겨지자 철학과교과위원회의는 즉시 모임을 갖고 교수결정, 지난 3일부터 정상수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本誌辭令  
任記者: <서울캠퍼스> 安貞美(문과대 영문과 2) 李珍府(사회대 사회학과 2) <경주캠퍼스> 吳成律(인문대 일본어 2) <이하 4월 1일자>

학생신문장은 10일 마감  
수습기자시험 6일 오후 5시

### 보리수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혼자 앉아서 넓은 하늘을 바라다 보며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 입도 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단 혼자서 말이다. 善財童子는 可樂國 和合山의 德功鐵比丘를 만나 念佛三昧에 드는 法을 배웠다. 어디에나 가득차 있는 光明이 곧 부처라 했다. 산도 나무도 바다도 하늘도 모두 光明에 빛나는 이 계절에 우리는 부처님을 도처에서 만날 수가 있다. 普門光明 그 속에서 諸佛을 광활하고 正念하는 三昧를 배운 善財童子는 다시 海門國의 海雲比丘를 만난다. 그는 12년 동안이나 大海를 바라다 보며 修行한 사람이었다. 나는 지난 週末에 濟州道를 갔다가 岳華經 入法界品의 이 대목을 상기하면서 엄청난 기적이 이

### 바다와 하늘

바다와 하늘은 부처님의 眞面目이다. 끝이 없는 그 광활함, 밀을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海門國의 海雲比丘가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그렇게 영원했을 때, 그는 바다위에 꽃핀 「妙

法蓮華」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아름다운 연꽃속에 앉으신 부처님이 普賢經을 說하신다. 이 세상 가지가지 衆生들의 가지가지 마음의 바다, 열원의 바다, 열빛의 바다, 열광의 바다, 열의 세계처럼 느껴지는 그 세계속에 감춰진 진리의 꽃을 보라는 것이다. 이 衆生의 바다를 佛보살의 바로 만드는데 지혜의 눈을 크게 뜨라는 것이다. 나는 오늘 우리 佛子들은 작고 좁고 더러운 이기주의의 시공간에서 뛰쳐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늘과 바다는 우리에게 너비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눈을 갖추라고 가르치고 있다. 李箕永

## 교원채용 - 학과변경등 인사

李丙曠 명예교수임명, 서울3·경주2명 신규로  
학교당국은 지난 3월 1일자로 尹炳植, 許正植교수의 학과소속변경과 지난달 1일, 27일자로 일부 신규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또한 尹炳植(前인문대 철학과)교수는 지난해 경주캠퍼스 철학과 학생들의 교과과정으로 요청에 따라 88년 9월 1일자로 불교학과에서 철학과로 소속변경되었는데, 지난 3월 1일자로 다시 불교학과 교수로 소속변경되었으며 許正植(前자연대 전산과)교수는 지난해 경주캠퍼스 정보관리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자로 소속변경되었다. 신규인사에는 ▲姜允皓(한외과대 한의학과 조교수)=70년 경희대 한의학과, 86년 同대학원 한의학과 박사과정 이수 ▲沈在甲(의과대 학의학과 조교수)=75년 부산대의과대학 교수 (이상 3월 1일자) ▲金善禧(사회대 행정학과 교수) =78년 본교 불교학과, 88년 남가주대학 행정학사 취득 ▲姜煥求(사회대 사회학과) =72년 서울대 사회학과, 87년 위스콘신 매디슨대학 대학원 사회학사 취득 ▲盧完燾(공과대 식품공학과) =65년 본교 식품공학과, 81년 본교 대학원공학박사 취득 (이상 3월 27일자) 등이다. 한편 李丙曠(前문과대 국문과) 명예교수는 지난 3월

## 대학원 협상대결

신입생등록금 동결등  
대학원협회는 학교측과 「신입생등록금동결 및 환불, 예결산전면공개, 재단전입금확보」의 3가지 문제를 지난달 30일 李昌培대학원장과 대학원장실에서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은 이렇다. 학교당국 총학생회·대학원협회의 각 2인씩으로 구성하는 3자회담을 마련,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1월 명예교수로 임명되었던 金大健(체육교육과)교수는 지난달 29일 체육실장직이 면직되었다.

## 추계 대학야구

경남대 꺾고 2승 2무  
본교 야구부가 지난 24일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에 선전에서 계명대에 7-6으로 첫 승리를 거둔 이어 경남대를 8-2로 꺾고 원광대와 8-8, 단국대와 2-2로 각각 무승부를 기록 예선성적 2승 2무를 거두었다. 오는 5일에는 경희대와, 8일에는 서울대와의 경기가 각각 있으며 이 경기의 성적이 따라 오는 11일부터 있게 될 결승토너먼트 출진이 결정된다.

< 8면 >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 신입사원모집

1. 모집 부문·인원 및 응시 자격		
모집 부문	인원	응시 자격
이공계	○○○명	정규 4년제 대학 모집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 또는 부전공자로 89년 8월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각군 전역예정 장교(89년 2월 전역석사장교출신은 지원가)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 또는 면제자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문·사회계	○○○명	경영학·경제학·무역학·법학·행정학·영문학(단, 어문계·사법계 및 기타 인문사회계 전공자는 상기 전공종 특이지원가)

-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 및 신체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함)
- 3. 제출서류  
가) 입사 지원서(당 그룹 소정양식) ..... 2통  
나) 대학 전학 성적증명서 ..... 1통 (대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 4. 입사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89년 4월 10일(월) ~ 4월 19일(수) 09:00~17:00 (공휴일도 접수)  
※ 단, 육·해·공군장교 전역예정자는 각군 취업 관리 지침에 따름.  
나) 장소: 현대 인력관리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본관(비원 열) 1층 (전화) 741-2111, 3111, 2121 / 3232, 3233, 3234
- 5. 기타  
가) 육·해·공군 장교 출신자는 우대함.  
나) 우원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오후 5시 전 도착하여야 함.  
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現代人力管理委員會

1989년 4월



### 제주 4·3민중항쟁의 재조명과 현대사적 의의

#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족해방투쟁

강 제 훈

<이과대 수학과>

## I. 들어가는 말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데는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된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를 되돌아 보는 것이 아닌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현실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분단의 극복, 즉 자주적인 통일국가의 수립이라는 절대명령의 과제가 놓여 있다. 그것은 모든 현실의 모순이 분단이라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가장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절대적 과제는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단의 고착화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제사건들의 조명이 필요하다. 이같은 노력은 지배와 피지배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분단상황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열매를 제시해 줄 것이다.

제주도의 「4·3항쟁」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은폐되고 왜곡되어 최소한의 사실조차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다. 「4·3항쟁」 내지는 「4·3사건」으로 전제되고 있는 이 사건은 해방후 최대의 민중항쟁이요, 분기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서곡이 된다.

우선, 4·3항쟁을 올바르게 조명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관점을 제정하고자 한다. 이는 이 사건이 구식민주의 지배에서 분단의 고착화를 통해 신식민주의 지배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세력과 식민지 민중간에 있어서의 갈등, 대립이 현실화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당시의 대립과 항쟁을 좌·

우 이데올로기 편향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역사에 있어서의 발전을 왜곡시키고 동시에 계급문제와 민족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함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미국의 전후 세계 지배전략과 연관되어 있는 대한 신식민주의화정책, 이를 위해 신식, 단정을 통한 분단국가의 수립과정 이과정에서의 한반도 민중들의 저항, 이상에서 말한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4·3항쟁을 검토해오지만 민중의 주체적 저항으로서의 총체적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II. 제주도의 특수성 (4·3 전까지)

### (1) 역사

4·3 분기 이전에 제주도에서 활발하였던 민중운동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민중운동들이 대체로 직접 국가를 그 대상으로 한 투쟁의 방향을 취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제주도가 육지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유리, 독립적 성격이 강하여 자주-소작 관계가 약해 직접 국가가 자주로 등장하였고 이결과 국가에 의한 직접적이고 제도적인 수탈이 가능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하여 도민들은 직접 봉건국가를 상대로 하는 반봉건 투쟁을 전개하면서 저항하였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봉건국가와 제주도의 결속을 부정하는 분리주의 또는 독립주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제주도는 또한 조선의 어느 지역보다 일찍,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침탈을 당했고 일제에 의한 어장침탈이나 그들의 수탈에 대해 분명히 저항, 치열한 항쟁을 전개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은 분산적이고 비조직적이었으며 자발적

적인 한계에 의해 무산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의 주체적투쟁역량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것은 이후의 시기에 이르러 조직적이고 집합적인 투쟁투쟁의 형태로 표출된다.

### (2) 사회·경제

해방직후 제주도에 조성된 사회·경제적 조건은 여러면에서 육지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제시대 일민과 중극대폭동으로 떠났던 도민들의 대거 귀환이었다.

이는 매일교회의 불합법 및 도승격에 의한 각종 잡세의 증가,

복합련단들의 우익세력과 도민들의 간의 충돌을 야기하였고 제주도 의 긴장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 (3) 정치상황

제주도는 8·15후 전국각지에서 조직되었던 인민위원회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견고하고 대중에 뿌리박고 있었다.

즉, 남한에서 인민위원회의 발전과 지속성을 위한 제도조건은 1930~40년대 감소한 인구가 해방후 증가된 지역 ③소작농 비율이 높지 않거나 지주의 힘이 약하여 농민들의 독립성이 보장된

바는 제주도 인민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무력화정책으로 전면적인 탄압이 필요했다.

동시에 미국은 「중공기리 싸우게 하는」 전술을 씀으로써 표면화한 상태는 좌·우의 대립으로 즉, 육지출신의 경찰과 서북청년단 (북한의 토지개혁시 토지를 몰수당하고 월남한 국유배려단체) 및 친일파의 만행과 그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으로 왜곡되어서 나타난다.

하지만 4·3 분기의 서곡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인 1947년 3월 1일 기념식을 통해 미국의 본질은 표면화된다. 즉, 일제에 반대하여 항

투하고 분단을 조장하려는 미국과, 이에 결탁하여 정권을 차지하려는 이승만의 5·10년독선기에 반대하고 남쪽한 통일정부의 수립과 인민위원회의 정권인양, 미군철수를 요구하며 친일파와 반동관료·경찰 및 서북청년단원 몇몇을 처단하면서 4·3항쟁은 시작된다.

초기 공세에 성공을 거둔 무장대는 곧바로 민중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 각 면에서 투철한 사상성 및 전투정신을 소유한 자를 30명씩 선발하여 연대와 소대로 구분 편성된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였고 5·10선거가 다가오자 그것을 파탄시키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세로 많은 선거 관련인사와 경찰, 우익 청년단체들이 처단되었고 각종시설이 습격당하여 파괴되었다. 이와함께 제주도승격당하여 파괴되었다. 이와함께 제주도 민중들은 5·10선거를 거부하기 위한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많은 선거관련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선거사무를 보지 않았고, 경찰 및 국유청년 단체의 유류와 탄약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또 제주도 민중들은 읍내의 투표장인 읍사무소와 새우서등을 파괴하고 투표장에 나가는 선거인들에게 선거기부를 선포하는 등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결과 제주도에서는 3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파탄되었으며 한개의 선거구에서만 선거가 간신히 이루어졌다.

이처럼 제주도 민중들의 조직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주도에서의 5·10선거가 완전히 파탄되어 미군정은 육지로부터 병력을 증파하여 군·경·서북청년들의 전면적인 진압작전을 제시한다.

미국에 있어서 제주도는 80%가 「탈영기」였고, 남한의 다른 지역을 반공 기지로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원인에는 관계없이 제주도 전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에 불을 놓아 30만 도민을 한꺼번에 태워도 좋은」 공산주의 숙청작업의 시합무대가 된 것이다.

이들은 게릴라의 근거지를 완전히 빼앗는 「삼팔작전」과 불태우고, 죽이고, 죽이는 「삼진작전」 등 트라기컬이식 수색작전과 잔혹

수행하고 분단을 조장하려는 미국과, 이에 결탁하여 정권을 차지하려는 이승만의 5·10년독선기에 반대하고 남쪽한 통일정부의 수립과 인민위원회의 정권인양, 미군철수를 요구하며 친일파와 반동관료·경찰 및 서북청년단원 몇몇을 처단하면서 4·3항쟁은 시작된다.

따라서 제주 4·3민중항쟁은 우리가 그 시기의 범위를 축소시키더라도 1945년 미국이 제주도를 점령하였을 때 이미 시작된 것으로서 이후 미국이 강요한 여러모순에 대한 제주도 민중들의 투쟁이 점차 고조화되고 정치화되어, 마침내 정치투쟁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의 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남한의 사회주의 세력이 여전히 미국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여 미국을 「진보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미군정의 적국 역할을 모색하면서 스스로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천명하였던 지방 인민위원회의와 유기적 연결이라는 중대시안을 방기함으로써 대중의 힘을 정치화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에, 제주도 민중들은 「민중정권」의 창출과 보위를 위하여 그것을 달성하는 미국을 주적으로 한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4·3항쟁은 제주도 민중이 온몸을 희생하면서 「조국의 통일과 자주」를 지향하였던 「반미 자주화 민족해방투쟁」의 정화로서 위치지어진다.

이처럼 제주도 민중들의 조직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주도에서의 5·10선거가 완전히 파탄되어 미군정은 육지로부터 병력을 증파하여 군·경·서북청년들의 전면적인 진압작전을 제시한다.

미국에 있어서 제주도는 80%가 「탈영기」였고, 남한의 다른 지역을 반공 기지로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원인에는 관계없이 제주도 전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에 불을 놓아 30만 도민을 한꺼번에 태워도 좋은」 공산주의 숙청작업의 시합무대가 된 것이다.

이들은 게릴라의 근거지를 완전히 빼앗는 「삼팔작전」과 불태우고, 죽이고, 죽이는 「삼진작전」 등 트라기컬이식 수색작전과 잔혹

이처럼 제주도 민중들의 조직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주도에서의 5·10선거가 완전히 파탄되어 미군정은 육지로부터 병력을 증파하여 군·경·서북청년들의 전면적인 진압작전을 제시한다.

미국에 있어서 제주도는 80%가 「탈영기」였고, 남한의 다른 지역을 반공 기지로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원인에는 관계없이 제주도 전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에 불을 놓아 30만 도민을 한꺼번에 태워도 좋은」 공산주의 숙청작업의 시합무대가 된 것이다.

이들은 게릴라의 근거지를 완전히 빼앗는 「삼팔작전」과 불태우고, 죽이고, 죽이는 「삼진작전」 등 트라기컬이식 수색작전과 잔혹

## IV. 맺음말

1945년 8월15일 한반도의 해방은 우리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극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3·8선 이남을 미국의 내소전진기지화하고 새롭고 경제적인 민족통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연립을 위해 자주독립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민족의 일치된 의사를 묵살한 채 3년동안이나 남한 땅에서 미군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것은 당연히 민족사에서 소멸되어야 할 전일 반민족세력을 재탄생시켰고 새로운 친미의존체제를 탄생시켰으며 민족 통일과 민족의 자주성을 외치는 민족자주세력에 대해서는 무력을 동원하여 탄압, 제거함으로써 남한의 친미반공정권을 수립시켰다. 이른바 견제를 수 없는 민족성의 왜곡과 역사의 왜곡이 시작 되었으며, 현재는 민족의 통일과 독립을 지향하는 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집단에 저항하는 최근의 「반미 자주화 투쟁」과 그것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민중들의 항쟁은 이 집권이 비록 중요된 것이기는 하나, 그 극복은 한 민족의 주체적 해방과 여기에 근거한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재삼 확인시키면서 발전해가고 있다.

이 투쟁이 올바른 방향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항산 인식해야 할 것은 이 투쟁이 극복해야 할 집권의 뿌리가 언제, 누구에 의해 정정화되고, 그 이후 아직까지 어떻게 그 주권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그 원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제 2차 세계대전후 최초로 집권한 「반미 자주화 민족해방투쟁」의 불화기 이후 한때 쇠퇴하기도 했지만 그 불화가 여전히 살아숨쉬고 그것이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주 4·3항쟁 당시 한라산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게릴라들

## 일부 좌익폭동 아닌 대다수민중의 항거 미군철수·통일정부 수립 위한 무장투쟁

그리고 여기에 따른 통상형태의 붕괴와 폭으로부터의 원로공급 투쟁에 의한 공업 및 농업생산의 감소 등 심각한 제주도의 경제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위대한 도민들은 많은 숫자가 진보적인 의식을 소유했으며 이후 제주도민의 정치의식을 일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에 의한 폭력수집정책이 실시되는 데에는 도민들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이 정책은 결국 자주독립시정체제의 위기를 의미하며, 폭력에 대한 투기·매질·과잉소비가 행해져 그 결과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기아,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침체 현상을 초래하여 도의상황을 파국적 상태로 이끌게 된다. 이에 도민들은 폭력수집관리를 집단구타하는 등 미군정의 폭력수집을 방해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3·1절 사건이후의 정치상황과 서

거한 3·1운동을 기념하는 이 집회는 곧바로 군중시위로 발전하여, 남한 단독정부 구상에 반대하고 모스크바 회담과 3·1절선언을 임박한 통일을 주장하며 군정청 건물로 물러가는 도민들에게 경찰이 발포, 어린이가 한명 이죽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게 된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미군정과 경찰의 사과와 처벌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나 미군정은 사과는 커녕 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증파, 진보세력과 제주도민들에 대한 대우의 격차가 들어감으로서 제주도민과 미군정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 III. 4·3 항쟁

#### (1) 전개과정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하여 한라산을 위시한 점도의 산악기지를부터 일제히 울린 봉화를 신호로 남한의 단독정부를

할 대량 학살작전을 전개하며 1949년에 접어들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4km이내 지역이 임박한 통일을 주장하며 군정청 건물로 물러가는 도민들에게 경찰이 발포, 어린이가 한명 이죽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게 된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미군정과 경찰의 사과와 처벌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나 미군정은 사과는 커녕 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증파, 진보세력과 제주도민들에 대한 대우의 격차가 들어감으로서 제주도민과 미군정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이렇게하여 전개된 제주도 4·3투쟁은 57년 마지막 말치 산악인 오원권이 생포될 때까지 9년만에 종결되며, 이항쟁은 제주도 인구의 약 1/4인 8만명의 인명이 희생된 해방이후 가장 큰 민중항쟁이었고 가장 오래 지속된 민중투쟁이었다.

#### (2) 성격

우리는 4·3민중항쟁이 1948년 4월 3일 갑자기 폭발한 것이

**논문평** **말살·왜곡된 우리역사의 분노, 4·3을 올바르게 평가하려는 정열과 의식 평가할만...**

**강 정 구** <사회과학대교수·역사사회학>

역사란 결코 단순한 과거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현재의 눈을 통해 본 과거이고 또한 과거가 현재 속에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제주도 4·3항쟁」은 지금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거센 호흡을 불어넣어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분단이후 약 40년동안 이 고귀한 역사의 숨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듣지 못하도록 강요 당했다는 서글픈 현실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

강제훈君的 글은 이런 분노의 한 표현이며 우리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모습을 분명히 규명해보려는 한 젊은 역사학도의 정열이 담겼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열과 투철한 역사관으로 「시대 착오적」 또는 「비상식적」이라고 너무나 간단히 몰아부치지 말아야겠다. 살아 움직이는 4·3항쟁의 역사교훈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늘날 우리사회가 나아가갈 방향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외제약**

샤린스로 즐거운 토요일!

**콘택트 렌즈**

**토요일은 샤린스로 단백질 제거하는 날!**

**눈의 건강을 위해 1주 1회 단백질 제거는 필수입니다.**

콘택트렌즈의 단백질 제거는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한달에 한번 또는 2주에 한번정도 단백질제거를 하신진 않으셨는지요? 콘택트렌즈의 단백질제거는 반드시 1주에 한번씩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단백질제거는 토요일에 하십시오. 새로운 단백질제거제 「샤린스」—샤린스로 콘택트렌즈의 단백질을 제거하시면 1주일이 더욱 상쾌합니다.

**중외제약의 새로운 단백질 제거제 「샤린스」**

샤린스는 파파인 효소의 뛰어난 분해 작용으로 단백질 제거효과가 뛰어나고 알약의 용해 시간도 짧아 사용이 아주 간편합니다.

안과나 콘택트렌즈 전문점을 찾는 번거로움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약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눈의 가려움증, 충혈, 이물감, 시력감퇴, 안질환을 야기하는 단백질—샤린스로 1주에 한번씩 단백질을 제거하고 맑고 건강한 젊음을 지키십시오. 단백질 제거제라 부르지 마시고 「샤린스」라 불러주세요.

\*샤린스는 뛰어난 효소분해 작용으로 망상 구조의 콘택트렌즈 용에 끼인 단백질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 뛰어난 효소분해작용 ● 짧은 용해시간 ● 간편한 사용방법

**지금,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주 1회 단백질제거제 샤린스정**

권장소비자가격 : 1정 → 500원

●미안한 근절하여 건강사회의 행복 ● 이는 약에겐 진리는 의사의게

# 정치력차이로 현실적대응방법 "두갈래"

## 해방직후 박헌영과 김일성의 변혁론 비교

강대승 <자유기고가>

### I. 머리말

1945년 「8·15해방」 직후 남북한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은 좌익이었다. 좌익은 1920년대부터 보급된 사회주의 이념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느정도 대중화되어있던 조직을 쉽사리 회복할 수 있었고, 항일투쟁으로 다져진 투쟁력, 그리고 해외의 수 많은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활동가들이 가세함으로써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족의 지도적 정치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해방 후 외세의 부당한 개입 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다면, 우리 민족의 진보는 좌익세력이 지향했고 민

따라 정책을 펴 나갔다. 그후 3년이 지나 남·북한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남·북한 정권은 서로 반대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럼 만 3년만에 남과 북에서 이렇듯 상반되는 정치권력이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미·소 양국의 남·북한에서의 의도와 정책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는 데에는 이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해방 직후 국내—특히 남한—정치세력의 역학관계가 그렇게 단기간에 심각히 전도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세의 개입과 역할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내정치세력 내부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이런 맥락에서 실패한 남한 좌익의 변혁노선을 상대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북한 좌익의 그것과 비

### II. 변혁론의 비교

#### 1. 변혁단계와 변혁론

대부분의 남한 좌익활동가들은 해방 직후 남·북한에 있어서 박헌영을 최고의 지도자로 평가하였다. 특히 「8월타계」로 알려진 박헌영의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1945. 9. 20)」라는 광활한 남한 좌익의 혁명활동에 있어 이론, 실천적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8월타계」에 나타난 변혁노선을 살펴보면 남한 좌익의 지향과 방법을 알 수 있다.

『김일 조선은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의 단계를 겪어가고 있으나 민족적 완전독립과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과업으로 서 있다... 우리 조선사회적도로부터 전자본주의적 봉건적 잔재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자유발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

#### 2. 변혁의 동력과 대상의 문제

『민중』이나 「민전」 등의 통일전선에는 민족적 독립의 공동 과제를 가졌던 김구, 김구익 등의 열렬한 민족주의세력과의 동력은 한반도 하지 못한 채, 좌익계열끼리만의 투쟁을 하는데 그쳤다. 이는 결국 여타 정치세력에 대한 전력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고 힘을 가속화시켰으며, 대중을 좌익세력으로부터 이탈케 하였다.

한편 변혁의 대상은 「지주, 고리대금업자」, 「반동적 민족 부르조아지」이며, 농촌 중층과 도시중상층은 중요 불확실성을 전인 혹은 중립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박헌영의 경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는 김일성이 인민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옹호 노선을 가지고 지도하기 위해 통일된 분세비

#### 3. 변혁의 동력과 대상의 문제

『민중』이나 「민전」 등의 통일전선에는 민족적 독립의 공동 과제를 가졌던 김구, 김구익 등의 열렬한 민족주의세력과의 동력은 한반도 하지 못한 채, 좌익계열끼리만의 투쟁을 하는데 그쳤다. 이는 결국 여타 정치세력에 대한 전력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고 힘을 가속화시켰으며, 대중을 좌익세력으로부터 이탈케 하였다.

한편 변혁의 대상은 「지주, 고리대금업자」, 「반동적 민족 부르조아지」이며, 농촌 중층과 도시중상층은 중요 불확실성을 전인 혹은 중립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박헌영의 경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는 김일성이 인민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옹호 노선을 가지고 지도하기 위해 통일된 분세비

주구들의 응징」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김일성은 당면 조선인민의 과제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이라 규정하고 영도계급은 일본제국주의에 끝까지 반대하며 용감히 싸운 노동계급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항일투쟁과정에서 다수의 자본가계급이 배반하였다고 비판하면서도,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노동계급과 농민 뿐만 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모든 애국적 민주연대가 참가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통일전선의 참여가 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점이 박이 주장하는 봉건과 차이가 난다. 즉 봉건의 대상과 운동을 달리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단계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들을 무원칙하게 배격하여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유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또 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서 『제국주의 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반대하고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노동계급이 핵심이 되고 광범한 농민들과 애국적 지식인을 내지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족자본가들까지 망라하는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인민정권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고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공산당의 대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하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수양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이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새 민주주의를 건설하느냐 못하느냐하는 문제는 결국으로 우리가 공산당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며 광범한 대중을 공산당의 주위에 집결시키는 사업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III. 맺는말에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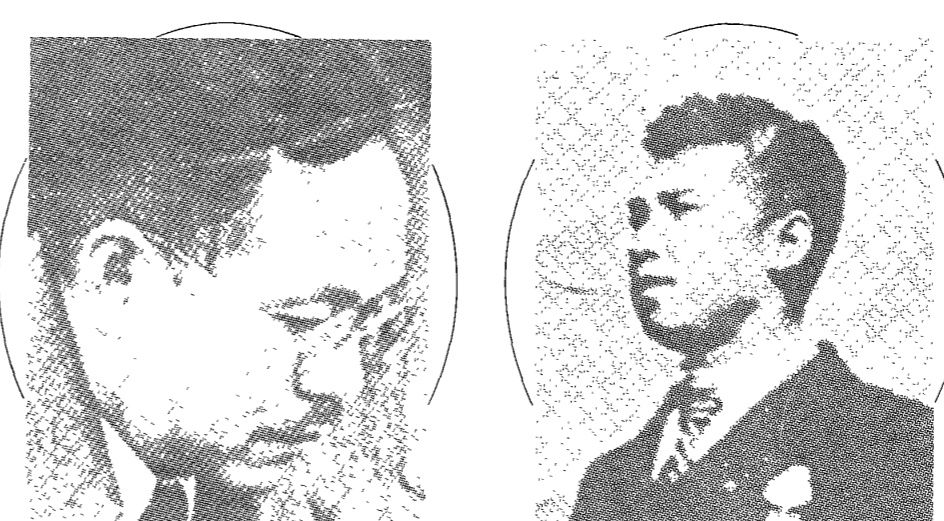
#### 하어

앞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박헌영과 김일성의 맺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들론 같은 점이 훨씬 많다)

첫째, 박헌영의 변혁노선 선점이 원칙적인 틀에 입각하여 있음에 비하여 김일성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을 수용하되 조선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적용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그들의 일정한 민족해방투쟁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 같은 만주의 항일유격 활동을 하는 현장 속에서 대중과 구체적으로 결합하며 투쟁하는 실천적인 모습이 강한데 비해 출판 국내에 있었던 박은 주로 지하활동을 하며 이론을 연구하는 인텔리계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둘째, 변혁의 대상과 동력에



박헌영 조선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를 겪어가고 있다.

김일성 조선인민 앞에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수행할 과업이 있다.

## 김-조선실정에 부합되는 민주제 주장 박-고전적 명제에 입각한 원칙론 고수

중이 지지했던 방향으로 나아 갔으리라 굳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을 패퇴시키고 들어선 미·소련 등의 외세는 한국을 나누어 점령하고, 각각 자신들의 요구와 이익에

교하면서 실패의 내부적 요인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러 한계로 인해 해는 주로 남북한 좌익의 핵심 지도자였던 박헌영과 김일성의 해방정국 초기 몇몇 저작과 연설문에 국한하기로

우리는 토지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 내지주의 토지를 보상을 주지 않고 몰수하여 ... 적게 가진 농민에게 분배할 것이요 ... 조선의 전 토지는 국유화한다는 것이요 국유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농민위원회·실업위원회가 이것을 관리한다』

「학원 자주 권 쟁취 투쟁」으로 『우리부모 고혈압』 등 특급 부당인상 즉각 철회하라! 『부총장 직선제 정취하여 경제 정취하자』 등 주권자 자치권 쟁취하자』 등 내릴수 없는 의외로 학자부의 깃발이 근래에 와서 온방골은 협회와 국면으로 들어선 느낌이다.

지나해 뜨겁던 학자부의 열기중 온방골의 학생들에게서 많은 시선을 끈 것은 「부총장 직선제」와 「등특급 동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나해 뜨거운 학자부의 열기로 학생들의 요구사항 일부만이 관철되어 온방골은 왜 아닌(?) 학자부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일부 열매들이 탐스럽게 잘익은 것은 결코 아니고 그저 형식만 갖 추고 있다.

「허수아비 부총장」이러한 부총장을 「경주자치권 운동」을 위해 해 교수·학생·직원이 참여하는 직선을 요구한 학생들의 절실한 의침들이 의변당하고 교수회의에

### 온방골의 봄

자극의 현상을 지켜볼때 「꽃이 아를 다와야 그 열매도 좋다」라는 말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학자부를 수행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동참해서 가열하게 나아가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은 이끌어 나가는 각 기구들이 불협화음만 일으킨다면 동국의 발전과 온방골의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권 확립은 결코 쉽게 이루어 질수 없을것이다.

온방골의 각 학생의 기구를 이 내재한 비민주적인 요소를 파헤쳐 철폐하고 풍서 일어날 때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학자부의 깃발이 펄럭일 것이다.

<오성록기자>

## "변혁단계론 바라보는 입장 차이 커" 동력과 대상 파악에도 차별성 가져

『민중』이나 「민전」 등의 통일전선에는 민족적 독립의 공동 과제를 가졌던 김구, 김구익 등의 열렬한 민족주의세력과의 동력은 한반도 하지 못한 채, 좌익계열끼리만의 투쟁을 하는데 그쳤다. 이는 결국 여타 정치세력에 대한 전력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고 힘을 가속화시켰으며, 대중을 좌익세력으로부터 이탈케 하였다.

한편 변혁의 대상은 「지주, 고리대금업자」, 「반동적 민족 부르조아지」이며, 농촌 중층과 도시중상층은 중요 불확실성을 전인 혹은 중립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박헌영의 경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는 김일성이 인민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옹호 노선을 가지고 지도하기 위해 통일된 분세비

『민중』이나 「민전」 등의 통일전선에는 민족적 독립의 공동 과제를 가졌던 김구, 김구익 등의 열렬한 민족주의세력과의 동력은 한반도 하지 못한 채, 좌익계열끼리만의 투쟁을 하는데 그쳤다. 이는 결국 여타 정치세력에 대한 전력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고 힘을 가속화시켰으며, 대중을 좌익세력으로부터 이탈케 하였다.

한편 변혁의 대상은 「지주, 고리대금업자」, 「반동적 민족 부르조아지」이며, 농촌 중층과 도시중상층은 중요 불확실성을 전인 혹은 중립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박헌영의 경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는 김일성이 인민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옹호 노선을 가지고 지도하기 위해 통일된 분세비

『민중』이나 「민전」 등의 통일전선에는 민족적 독립의 공동 과제를 가졌던 김구, 김구익 등의 열렬한 민족주의세력과의 동력은 한반도 하지 못한 채, 좌익계열끼리만의 투쟁을 하는데 그쳤다. 이는 결국 여타 정치세력에 대한 전력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고 힘을 가속화시켰으며, 대중을 좌익세력으로부터 이탈케 하였다.

한편 변혁의 대상은 「지주, 고리대금업자」, 「반동적 민족 부르조아지」이며, 농촌 중층과 도시중상층은 중요 불확실성을 전인 혹은 중립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박헌영의 경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는 김일성이 인민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옹호 노선을 가지고 지도하기 위해 통일된 분세비

선 김은 친일세력과 민족자본가에 대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 개조가능성에 주목하는데 비해 박은 개조가능성 보다는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전 운동에 있어 여타 정치세력에 대한 태도와도 연관되는바 남한에서 박헌영이 김구, 김구익세력과 연합작업에 실패하였음에 비하여 김일성은 남북 단의 고착화가 노골화될때 김구와 김구익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수차례 회담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은 무엇보다 두 좌익 지도자의 정치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 자료 - 김준영 외, 「북한연구자료집 (1)」, 고대아시아문제연구소 고대출판부, 1969 중 박헌영과 김일성의 글

# 구수한 맛! 보리음료 롯데 "비비콜"

구수한 맛 보리음료 롯데 비비콜  
이제 구수하고 시원한 보리음료를 마시고 싶다. 천연보리엑기스와 천연보리향으로 만든 롯데 비비콜 — 마시는 순간 가슴이 탁 트이는 상쾌함! 구수한 보리의 맛이 살아있는 롯데 비비콜

롯데실업음료(주) 800-1111

# 노동운동, 정치투쟁으로 집약·집중

##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



장명국  
〈석탄노동연구원 원장〉

### I. 새로운 노동운동의 전개

분단과 6·25전쟁으로 노동운동은 한때 거의 전멸의 대상을 되는데다가 「광장」에서 노동운동의 대안으로 여겨져 왔으며 노동조합운동은 제한된, 단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국한된 조합주의가 상부로부터 내려오면서 그 발전을 저해해 왔다.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현재까지의 노동운동은 불·여·가·을·겨울 없이 계속 발전되어 점차 그 사회적 기초와 조직적 토대를 구축해가면서 대중운동을 통일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보여주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노동운동이 제한된 민족생산의 계층적 운동으로 낮은 차원이었던 이제는 2천 5백만 노동자계급운동으로 한 차원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판매서비스·전문

직 노동자들도 자신의 사회적 존재와 역할을 자각하면서 노동자계급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또한 실업반민들도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되어 가고 있다.

둘째, 노동운동은 모든 자본에 반대하는 것으로 '주변'하는 데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의 굴레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직장과 사회·역사의 주인 주체가 되는 자주성과 주체성을 정취해 가는 과정이다.

노동조합주의를 극복하면서, 의의적 삶에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삶의 태도를 위한 투쟁으로의 새로운 노동운동은 87년 이후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셋째, 노동운동 역시 우리나라의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은 모든 자본에 반대하면서 그 중심고리를 재발견해 주어야 할 권력의 반대편에 투쟁하고 있다. 즉 매관직 관료독재정권에 투쟁의 중심고리가 놓여진다는 의미이다.

87년 7·8월 이후 노동운동은 분단하에서 방위산업 즉 안보산업에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재벌 대기업, 운수·관광·서비스업 등 그리고 지하철도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났다. 현대·삼성·대우그룹 재벌기업의 노동자들이 권위주의적 전근대적 봉건적 복제를 허물고 있으며 의극자본과 결

탁된 매관자본의 "축출을 위하여 그리고 안보산업에서 분단의 벽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II. 현대·삼성·대우와 지하철도노동운동의 현황

88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된 현대중공업의 4개월간의 파업투쟁은 공권력의 투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제히 3개월간의 원상대조보다 더욱 장기적인 현대중공업, 대우정밀, 삼성중공업, 풍산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분단하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전형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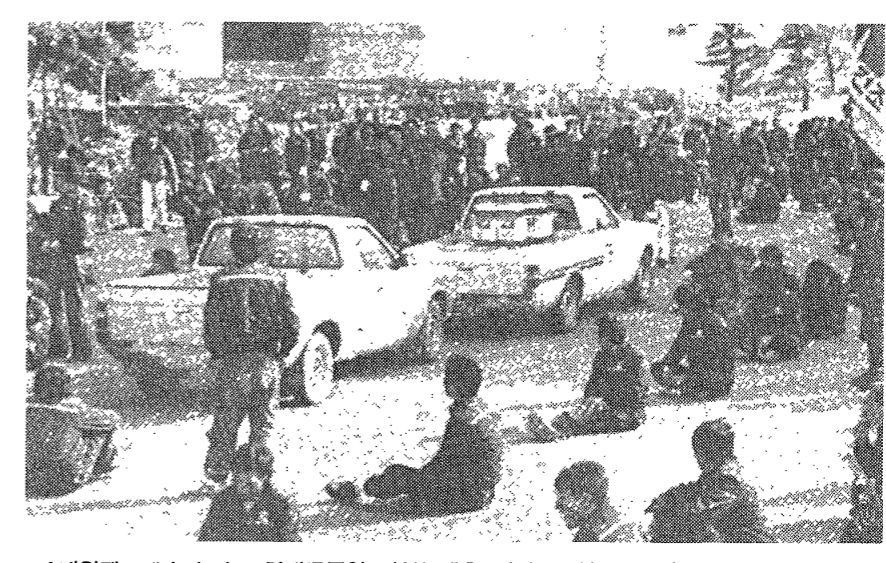
원장에게 위임하자 이원건직 부대리는 파업총회를 대의원 대회의 결의로써 선포하고, 전조합원 총회까지 의결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위원장 사표를 제출한 서태수는 회사와 관의 사주를 받고 선 조합 후 협상을 주장하자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단체협약 타결없이 조합은 안된다」고 절대다수가 투표로써 결의하게 된다. 또한 해고자복직없이 단체협약 체결은 무의미하다고 의사로 집약하여 노동자로서의 동료애와 의리를 증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측과 권력의 하수인이

합작으로 「테러사건」을 자행했으며 계속 폭압적 탄압정책을 피습하면서 마치 노동조합의 싸움인양 왜곡조작했다. 그러나 4개월간의 배고픔의 공포를 극복하면서 또한 구속과 테러의 폭압을 단결력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현대노동자들의 투쟁은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전체 한국노동자에 대한 의사와 관·재벌의 탄압을 받는 방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 역시 노조불가라는 이견회피와 이른바 TK사단(신원화 전총리가 삼성의 회



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파업투쟁은 지난달 30일 폭력적인 공권력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열적등과 함께 노조와 이미 협박의 사항이 지킬 수 없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그러나 공권력은 오

작년말과 올해초의 노동운동의 새로운 모범들은 89년이후 노동운동의 전개와 발전에 많은 암시를 주고 있다.

89년 이후 노동운동은 첫째, 올바른 사회적 기초를 보다 확고히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분단과 6·25전쟁으로 미국에 의해 위로부터 강요된 개량적 노동조합주의는 그 구성이 드러나 파멸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70년대 이후 나타난 근정주의적 경향과 80년대 이후의 소자본계급의 급진주의적 경향도 점차 불식되면서 우리나라 노동자 계급과 계급의 입장에 부합하는 기초한 자주성과 주체성의 확립을 통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이념이 확립될 것이다. 개량적 조합주의에 기초한 노동운동은 점차 몰락해 가고 그 몰락과 함께 자주성에 토대를 둔 민주적 노조집행부가 광범하게 등장하면서 노동운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노동조합의 조직은 단위사업장의 민주적노

조운동을 토대로 재벌별, 산업별, 지역별 노동자의 단결조직을 중추적으로 하여 민주적인 전국노동조합이 어울려 노동의 구각을 깨뜨리고 등 돌바를 사회적 기초를 보다 확고히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정치조직은 마땅히 남북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지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통일·조직적 통일과 함께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대중운동이 통일·발전될 때 민주정부수립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국민의 달성을 수 있다. 89년 이후의 노동운동은 모든 것이 정치투쟁으로 집약 집중되어 하며 이러한 노동자의 정치투쟁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바로 민족운동으로 집중된다.

원대중공업·삼성·대우·풍산·대우·모토로라·지하철 등

허리 노조를 탄압하고 직접 경찰병력을 투입 노조간부들을 구속 수배하여 지하철도 노조운동의 선봉에서 서서 공권력과 권력의 굴레를 깨뜨려려는 노조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 탄압이 가중되면서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과 정치조직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민주적 투쟁을 위한 노동운동의 전개가 89년 이후 나타난 전망이다.

## 현대중 파업투쟁은 노동운동의 새전형 보여 노동자의 정치조직화로 개량적 조합주의 극복

다. 그중 삼성중공업은 노조 결성을 위한 투쟁으로 작년 6월부터 이고 이젠 87년 8월부터 계속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대중공업노동자투쟁은 해고자복직과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그리고 대우정밀은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재벌당국과의 싸움이다.

현대의 경우 88년 12월 12일, 7·8월 노동자대투쟁에서 결성된 민주노조집행부를 모두 구속시킨 가운데 당시 선전 서태수위원장은 6개월간에 걸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폭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 권한을 이원건 직수석부위

원대중공업의 총의를 무시하자 올해 1월 6일 조합원총회에서 98% 서태수를 불신임하고 95%의 절대다수로 새위원장에 이원건한대결 경 수석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고 1월 말 대의원선거를 행하여 새집행부를 구성한다. 그러나 현대측과 노조의 민주적 투쟁을 통한 총회와 투쟁을 통한 노조집행부구성은 분별이라고 주장하자 현대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타 올랐다.

1월 6일 총회결정에서 논란 현대나 공권력은 1월 8일 새벽 회사·관·재일리 등의

집합)의 노동자탄압정책과 싸우는 선봉에 선 대중적 노동운동이다. 남치, 테러, 배수, 불법을 자행하는 삼성 현대 등 재벌당국을 비교하는 공권력과 싸우는 우리 노동자들의 조직의 확대와 결단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 시야를 넓히고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과 노동자 정치조직의 건설 강화, 그리고 각계각층의 통일전선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대철도의 민청화면관련 조합간부가 3대 위원장에 선출되자 공사측에서는 공사가 원하지않는 사람이라고 하여 노조분

### III. 노동운동의 앞으로의 방향

현대중공업·삼성·대우·풍산·대우·모토로라·지하철 등

파괴하는 노조권과 입지강화 확대를 노리는 야권의 보수 대연합구상은 현대적 민선세력의 역할과 노력을 감안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중간계가 철회후 민선세력은 일련의 강경조직화 향후투쟁을 전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으로 민선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다.

단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노동자들의 임금상승투쟁은 중간계와 함께 가장 큰 생점으로 떠오를 예정이었다. 그것을 사전에 제어할 목적으로 노조권이 시도한 서울 지하철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조집행부를 구속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봉쇄가 가능했다. 그러나, 집안 연세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노조는 다각적인 방식으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임부의 예상을 꺾기위한 민선세력도 노조운동의 연대의 토대 위에서 그 불길까지 지우고 있다는 사실은 탄압에 의해서 민선세력은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중요한 쟁점의 하나인 임부의 양측 상호간의 착안과는 다른 새로운 절적인 대응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문목사 탄압은 정권의 반통일성 自認

이와 평화분위가 정착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고 머뭇머뭇하며 거저막기로 조대열에 청년학생총회를 허가했을 지라도 전민련의 범민총회 추진을 국면의 통일운동을 그 본질상 단아낼 수 없으므로 해서 북

중간계가 철회의 필연성을 위와같이 지적한다면 노조권이 구성하고 있는 앞으로의 정국 주도도는 자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중간계가 철회할 협상과정을 통해 일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담화문에서 노태우 자신이 직접 언급했

중공업 강제집안담 자신의 최대의 집권위협세력으로 생각되는 민선세력에 대해 유래없는 강경탄압을 미시하는 한 보수야권과의 보수대연합구속 움직임, 그리고내부의 강경파에 대한 인사개편으로 정권의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중에서 군인사 개편으로 이미전위체제를가시적으로 구축했음을 우리는 추측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대중의 민주화 열망에 힘입어 여소야대라는 행복한 국회를 가질 수 있었던 보수야권은 그동안 민선세력의 부흥으로 정치권 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민선세력이 정치적 성장을 할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점·강화하기 위해 일정정도 민선세력의 진출을 봉쇄할 필요성을느꼈으므로 노조권이 제시한 보수대연합 구도에 편승할 가능성이 줄어들고있다. 그러나 자신의 집권안정을

여기서 보수대연합구속을 비집고 증명될 후에 광범한 집회를 극복해야만 하는 민선세력, 노동자들의 입부에 적극 동참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간계가 철회후 민선세력은 일련의 강경조직화 향후투쟁을 전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으로 민선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다.

단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노동자들의 임금상승투쟁은 중간계와 함께 가장 큰 생점으로 떠오를 예정이었다. 그것을 사전에 제어할 목적으로 노조권이 시도한 서울 지하철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조집행부를 구속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봉쇄가 가능했다. 그러나, 집안 연세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노조는 다각적인 방식으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임부의 예상을 꺾기위한 민선세력도 노조운동의 연대의 토대 위에서 그 불길까지 지우고 있다는 사실은 탄압에 의해서 민선세력은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중요한 쟁점의 하나인 임부의 양측 상호간의 착안과는 다른 새로운 절적인 대응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5공화국의 기형적 상상아

로 태어난 6공화국은 여소야대 국외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집권세력 내부의 강·온파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노조권은 집권기간 내 최대의 위기가 될 중간계와 지방자치제 실시등의 정치적 난제를 안고 89년을 맞이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자대중을 중심으로 한 기층민중의 생존권쟁취투쟁과 5공비리, 관주학살, 전·이구속투쟁, 조국통일 추진투쟁 등 민족민주운동성격을 노래우정연대에 계속된 공세를 피부었다.

노조권은 지난 집권 1년동안 5공비리, 관주학살, 부정부패를 집약하는 정권의 허약성을 극해보고자 했다. 올림피아에 환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국민대환이던 이데올로기 문수를 쓰는 한편, 국회청문회를 통해 5공비리문제를 기관적으로 매듭짓고 자신이 가장악한 고리인 관주학살 문제를 마무리지음으로써 중간계가를 통해 자신의 집권을 안정화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이구속투쟁으로 5공파의 참동이를 폭로하고 확실책임자 처벌투쟁으로 노태우 자신이 관주학살 당사자임을 강조하고 두대통령

### 중정거부 후 수세국면 타개위해 탄압 가중

평가와 지지제실이라는 정치적현안과 더불어서 예상되는 기층민중의 생존권쟁취투쟁과 통일운동, 5공, 관주학살투쟁 등 난제로 인하여 돌파구를 찾지않았을 안티게 되었다.

그 돌파구로서 찾아낸 것이 신메타트 무드에 편승해서 올림피아 이후에 추진된일련의 북방정책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작 한반도에 기관적

방정책은 그 기관적 성격에 목표할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마지막 카드로 제시했던 북방정책마저 그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자 집 권위기에 몰린 노조권은 집 권후 시종불안이 광범한 강경파의 움직임에 과도하게 의 부로 표출시켜 국민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민중운동을 좌절시켜 체제 전

지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계속적으로 자신의 안정적배를 해치는 민선세력의 정치적 성장에 대한 봉쇄의 필요성. 둘째, 정국을 주도하는 데 불편한 여소야대 국외의 재건의 필요성. 셋째, 집권세력 내부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군부강경파 및 5공세력의 적결과 친위체제구축의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 광범위한 조직적 연대는 운동역량 강화반영

평가와 지지제실이라는 정치적현안과 더불어서 예상되는 기층민중의 생존권쟁취투쟁과 통일운동, 5공, 관주학살투쟁 등 난제로 인하여 돌파구를 찾지않았을 안티게 되었다.

그 돌파구로서 찾아낸 것이 신메타트 무드에 편승해서 올림피아 이후에 추진된일련의 북방정책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작 한반도에 기관적

방정책은 그 기관적 성격에 목표할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마지막 카드로 제시했던 북방정책마저 그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자 집 권위기에 몰린 노조권은 집 권후 시종불안이 광범한 강경파의 움직임에 과도하게 의 부로 표출시켜 국민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민중운동을 좌절시켜 체제 전

●약은 약사에게 진로는 의사에게

## Miss 레모나 지금은 봄이에요!

봄벌의 따사로움이  
너무 강하죠?  
봄에 깨어나는 피부—  
레모나로 탄력을 유지시켜 주세요.

레모나는 체내에 잘 흡수되어  
피로를 회복시켜 주며,  
기미·주근깨 형성을 예방시키고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어 주는  
비타민C 제제입니다.

이 봄 레모나와 함께  
상상만 만남의 싹을 움트게 하세요!

한바탕 봄의 향연이  
너무 강하죠?  
봄에 깨어나는 피부—  
레모나로 탄력을 유지시켜 주세요.

레모나는 체내에 잘 흡수되어  
피로를 회복시켜 주며,  
기미·주근깨 형성을 예방시키고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어 주는  
비타민C 제제입니다.

이 봄 레모나와 함께  
상상만 만남의 싹을 움트게 하세요!

●표준매가: 20포 2,000원/240포 23,000원

경남제약주식회사

# 구성·형식의 단순함등이 공동창작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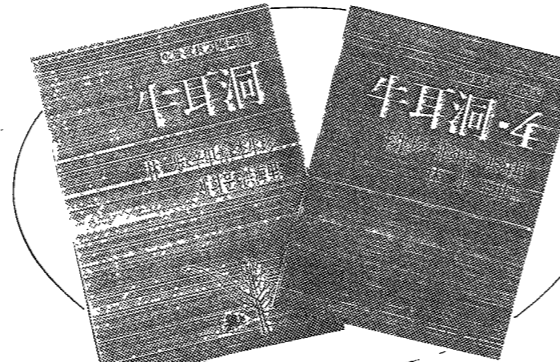
## 「공동창작」에 대하여

어느 예술과 한가지로 문학과 그 완성도에 있어서 성패가 결정된다. 흔히 말하는 내용과 형식의 일치라 그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주제와 재질(材質) 감의 융합이며 통일성을 전제하는 까닭이다. 구성도 구성이러니와 구성은 그 형식의 정체가 들어 예술성은 판가름된다.

이런 창작, 공작이 쉽지 않다. 조지훈이 박복일과 주고 받았다는 「玩花影」과 「나그네」는 화담시로서는 남들이 가지만 이 두 작품을 두고 공동창작이라 볼수는 없다. 『차운 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산새가 구슬과 울음 운다.』 구를 흘려가는데 물결은 七百里/나그네 긴 소내 꽃잎에 젖어/술 익는 강마물의 저녁 노을이여』이 밤자면 저 마음에/꽃은 지리라』다정하고한 맑음도 별인 양하여/달빛이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조지훈의 「玩花影」)

『강나루 건너서/밀밭길을/구름에 달 가듯이/가는 나그네』길은 외줄기/남도 삼백리/술 익는 마음마다/라는 저녁 놀/구름에 달 가듯이/가는 나그네.』(박복일의 「나그네」)

『아해야, 네게 그/백운대 오르는 길을 일러 주마./한수에서 한 백리쯤 북으로 가면/술냄새 가슴도 타는 북한산 계곡/흐르는 물에 귀도 씻는 우이동이 있지.』(우이동 동인의 합작시 중 1연)



아해야, 네게 그/백운대 오르는 길을 일러 주마./한수에서 한 백리쯤 북으로 가면/술냄새 가슴도 타는 북한산 계곡/흐르는 물에 귀도 씻는 우이동이 있지.



정비되어 있었던 시대의 문화 특히 시는 여러사람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시가 바로 그렇다. 『月白雲白天地白(눈도 희고 달도 희고 천지가 흰데)』(산深溪深客愁深(산도 깊고 발도 깊어 나그네 수심도 깊어))

『월하 백운대 오르는 길을 일러 주마./한수에서 한 백리쯤 북으로 가면/술냄새 가슴도 타는 북한산 계곡/흐르는 물에 귀도 씻는 우이동이 있지.』(우이동 동인의 합작시 중 1연)

## 「牛耳洞」동인의 합작시...형식의 통일보여

### 민요가 자유시보다 공동성-협동성 우위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나도 이젠 좀 크련다 허울 좋은 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지금 진실을 전한다는 자부심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도 이젠 좀 크련다 허울 좋은 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지금 진실을 전한다는 자부심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도 이젠 좀 크련다 허울 좋은 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지금 진실을 전한다는 자부심으로 오늘을 살리라.』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한다. 이것은 물론 각기 따로 써서 편지로 주고받은 「玩花影」과 「나그네」의 경우와 다르다. 어쩌면 그 다섯사람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써내려서 마지막에 누구 한사람이 마무리 손질을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것도 산에 오르기에 앞서 미리 셋까지 형식의 약속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목과 길이를 정하고 그리고 다섯사람이 각기 본담을 정하여 1연을 우이동까지, 2연은 도선사까지, 3연은 갈락고개까지, 4연은 백운대까지, 그리고 5연은 정상에서의 조망으로 5등분해서 나중에 정리했다고 하니, 그런데도 체재와 형식의 통일을 미리 다룬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순서에서 단이 아니라, 1연의 첫마디 「아해야」로 시작하여 내내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합창과 회담으로 이어간 것이나, 또는 그 아이에게 타이트로트하는 말투로 보아 전체적인 말투라는 어느 한사람이 맡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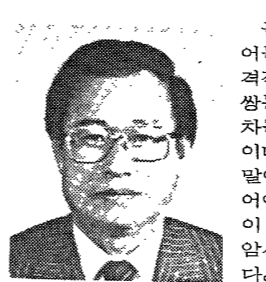
그것은 반드시 다섯사람의 동인으로서의 체질적, 기질적 인 통일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민요의 경우는 훨씬 수월하게 그 공동성협동성을 드러낼 수 있다. 가령 『경정서방/무얼 먹고 사나/알밭에 풍 한조각/뉘말고 팔한 조각/주워먹고 사네.』의 경우 한 소절씩을 5등분하면 다섯사람이 부르는 것으로 된다. 문답식 민요의 높이저성성에 더욱 부합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아해야, 네게 그/백운대 오르는 길을 일러 주마./한수에서 한 백리쯤 북으로 가면/술냄새 가슴도 타는 북한산 계곡/흐르는 물에 귀도 씻는 우이동이 있지.』(우이동 동인의 합작시 중 1연)

## 金長好

〈사법대교수·현대시론〉

# 달하나 세대에 대학풍토



尹 綜 善  
〈문과대교수·독어학〉

인인 반드시 세대로부터 단정될 수 없지만, 평범한 의미에서 필자가 근년 꼭 글로 쓰기로 마음먹고 있었던 몇가지 가지적 충고를 적기로 한다.

근일 필자가 얻어들은 말씀에 충격적인 것이 있다. 상용이 형태도 세대차를 느낀다는 것이다. 크게 과장된 말이겠지만 적어도 어이없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안다. 이해가 어려운 일이라 하여 그 일 안에서 인사는 왜 안 하는가? 대학구내에서 인사는 왜 안 하는가? 지금의 대학은 몇몇 종교교에 가면 학부모토로 일만 내빈으로서, 경우에 따라 외원으로서도 학생들의 인사를 받기가 바쁘다. 최고학부라는 대학에서 그것도 같은 단과대 안에서 학생이 교수나 직원에게 인사하기를 주저한다면 이는 부연이 크게 잘못된 현상이다. 같은 시대를 공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격체로서 상대방의 수고에 대하여 동요적 의미의 예를 표하는 것이 인사라 해도 그로써 부담스러울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의 대학은 옛날의 선비이다. 선비가 스승에게 인사하는 자유에 익숙이 써붙여 있었다. 공을 차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해야, 네게 그/백운대 오르는 길을 일러 주마./한수에서 한 백리쯤 북으로 가면/술냄새 가슴도 타는 북한산 계곡/흐르는 물에 귀도 씻는 우이동이 있지.』(우이동 동인의 합작시 중 1연)

『아해야, 네게 그/백운대 오르는 길을 일러 주마./한수에서 한 백리쯤 북으로 가면/술냄새 가슴도 타는 북한산 계곡/흐르는 물에 귀도 씻는 우이동이 있지.』(우이동 동인의 합작시 중 1연)

## 탈수습기

### 가식의 탈 벗고 곱은소리로 내 이야기라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 안정미

### 기자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 이제는 가식의 장막과 따가리의 오명을 벗고 진실과 호호하는 참 인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 성

### 를

### 기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 성

### 를

### 기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 동약장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 제27회 高校生문학콩쿠르 작품모집

『아, 서러운 수습이여!』라고 휘저수습의 어느 구성원인가 작은 기억이 바로 어제같은데, 벌써 탈수습이구나. 이렇듯 「벌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특진」이라는 별명에서(?)를 부여 받은 까닭인가.

# 대동단결로 총체적 총학 건설이 과제

## 각종 흑색선전등 그치지 않아 문제점으로 선거에 집착·방관한 학내외 사업 전개해야

### 해설

제21대 총학생회장선거가 지난 28, 29일 치러져 기호 2번 김성규(사학4)·윤평현(독문4) 조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흑색선전 난무 등 유세에 전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의 모순점을 안고 있다.

즉 작년부터 학생회칙이 바뀜으로써 실시된 3월선거의 전철이 가장 현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학생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89년 총학생회장선거에서 서출연산하 각 대학중 본교를 비롯해 극심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85년 학내 경찰진입으로 인한 공보물손실을 제외한 최초의 선거운동원예의 한 입후보자를 공보물 훼손 총학생회 실시이후 초유의 「학생회비부담지출」 공시발언, 운동원들 사이의 몸싸움등 후보들간의 반목정세가 극대화되는 한계까지 이르러 사회선거전보다 나은 점이 없는 양태를 보였다.

이와관련, 총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이후에도 낙선된 후보자의 일부운동원들은 선거전의 고비를 못지않고 20대 총학에 계속해서 비방을 가하고있어 출범식 이후에도 총학생회 집행에 차질을 빚게 할 우려를 안고 있다.

선거분위기에 있어서도 전체 학생들의 친체적 분위기와 운동원들의 과격함 활동이 내조를 이루어 단결의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예년에 비해 극심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85년 학내 경찰진입으로 인한 공보물손실을 제외한 최초의 선거운동원예의 한 입후보자를 공보물 훼손 총학생회 실시이후 초유의 「학생회비부담지출」 공시발언, 운동원들 사이의 몸싸움등 후보들간의 반목정세가 극대화되는 한계까지 이르러 사회선거전보다 나은 점이 없는 양태를 보였다.

이와관련, 총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이후에도 낙선된 후보자의 일부운동원들은 선거전의 고비를 못지않고 20대 총학에 계속해서 비방을 가하고있어 출범식 이후에도 총학생회 집행에 차질을 빚게 할 우려를 안고 있다.

선거분위기에 있어서도 전체 학생들의 친체적 분위기와 운동원들의 과격함 활동이 내조를 이루어 단결의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개 있는 3투표구에 밀집되는 등 인맥에 얽힌 사회선거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했다 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내별 투표율에서는 1학년이 단연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지만 올바른 총학생회 위상과 선거의 관점정립이 있어 오히려 재고의 문제점으로 등장했다. 한편 투표구별 선거율은 3투표구(71.6%) 1투표구(70.46%), 2투표구(68.55%), 4투표구(63.3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3월선거의 서출연산하 사업추진부진, 인수인계미비등의 맹점 보완을 위해 총대외위원회에서는 선거의 재반문제해결을 목표로 4월중에 11월선거시행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여론조사를 갖고 이에따라 학생회칙의 개정등을 통한 선거시기결정을 고려하고있다.

21대총학생회는 학자부담수와 대외적으로 청년학생총정 참가등을 통한 통일여로의 접근을 위해 타후보들과는 다른 학생대중과 연대세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사업전개 등 주도해야 할 것이다.

<서출연기자>

## 기획학술부 요구

### 경주교수회 연구의욕 고취위해

경주 캠퍼스 교수회(회장=崔泰泰)는 지난달22일 대외위원회와 갖고 학교측에 「기획학술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는 현재 경주캠퍼스에 설치 예정인 「기획홍보부」보다는 교수들의 연구의욕고취와

## 회계학연구논문

### 黃潤植교수 발표

「회계학의 정보적관점에 대한 실증적연구」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주캠퍼스 黃潤植(회계학과) 교수의 논문발표회가 지난29일 오후 2시30분 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논문발표회는 정우식(회계3) 군의 사회로 축하패증정, 화회장인사, 논문소개, 黃潤植교수의 논문발표, 폐회사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단체협약 지난달 20일 체결

### 직원노조 정년연장-주5일제 근무실시

직원노조 89년도 단체협약이 지난달 20일 오후 4시 李智冠총장, 金炯秀부총장, 宣相泰서울캠퍼스노조위원장, 鄭慶鎭경주캠퍼스노조위원장이 총장실에서 합의, 조인함으로써 체결되었다.

이날 협약체결에 유보되었던 임금인상문제는 지난달 27일 총장실에서 총장을 비롯한 위 의 대표자들이 다시도 5%인상에 합의를 하고 3월달 월급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체결과정에 있어 「2월22일 1차교섭부터 5차교섭을 통한 기간이 1달여에 걸친 지루한 시간이었다는 점, 학교측의 무성의와 비타협적 자세로 일관했던 인인한 자세, 이로인한 직원노조의 요구들이 상당부분 충족되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 "노학연대로 현대노조 사수"

## 만해광장 학생·노동자 1천여명 격렬한 투석전

「현대중공업 노조 폭력단압 규탄대회」가 지난30일 오후 1시 학생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캠퍼스 도서관앞에서 비상총학주최로 열렸다. 노태우퇴진을 위한 투쟁본부 준비위원장 박근직(국문4) 군의 사회로 열린 이번 대회는 현대파업투쟁보고, 폭력단압에 대한 분석, 투쟁결의문의 순으로 이어졌다.

또 비상총학위원장 박근직(사학4) 군은 투쟁결의문낭독을 통해 「생사의 주인임을 되찾던 현대노동자들을 행까지 지원, 뒷받침은 정우성, 노태우일당에 애국청년학생도서연대투쟁회 나팔기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한

폭력정권 및 배려제발 단행규탄대회」가 만해광장에서 지난 2일 오후 3시 이부영전임의장등 재야인사·학생·노동자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대적·전노연행 주최로 열렸다.

노동자투쟁보고, 노동자의 노태우정권규탄 투쟁결의발표, 청년학생노동자투쟁지지, 전민련의 지지발표, 공동결의문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이부영전임의장은 「정경유착과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노조권력회복을 위해 학생·노동자·재야등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모아 투쟁할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집회를 마치고 후문과 중문으로 진출한 학생·노동자등 1천여명은 통과 최후단을 단사하는 경찰에 화염병과 돌로 맞서다 오후 5시경 자진해산했다.

이번, 시위에서 김근태전

## 제21대 총학생회장 김성규

### 인사

지난 28, 29일 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1대 총학생회장선거에서 총투표율 68.9%, 지지율 48.3%로 당선인 확정된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 군은 「일단 학우의 힘으로 무사히 선거를 마무리 할수 있었던 것에 감사사를 드리며, 선거시의 여러문제를 풀고 학자투쟁을 끌어갈 사람으로서 어깨가 대단히 무겁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21대 총학은 「구국의 횃불」과 하나된 몸짓으로 통일조국의 신생애를 노래하라! 그대 자주투쟁아! 라는 슬로건이 보여주듯 통일단결의 대의아래 공동집행부 구성을 통한 학자투쟁 완수, 노태우퇴진투쟁, 조국통일촉진투쟁을 가장 큰 사업계획으로 세워놓고있다.

「지난해 학자투쟁은 사상적인 관념적인 8개항의 구조적 투쟁과 조직건설의 부재, 하반기의 감정적인 오

유난히 많았던 흑색선전과 루머로 학생들간의 신뢰가 어느정도 흐트러지지 않았을까하는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3월선거로 인한 신입생들의 혼란과 3·4학년간의 괴리현상을 일정한 힘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김성규의 태도에서 필히 가진 총학생회장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정치투쟁을 「총학 사회부, 구국선봉대의 강화를 통해 조직적 활동을 마련하고 매이데이 투쟁과 같은 시기적 요구, 학우대중의 인식고양에 따른 주체적 요구를 배합원칙을 설정해 강고히 결집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투표인의 50%가 지지한 이번 총학은 나머지 50%의 학우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결해서 학자투쟁을 완수하자」라는 당부를 하며 말을 맺는 김성규의 뒷모습에서 총학의 뜻에 자주투쟁 불사의 열성이 멀지 않음을 느낄수 있었다.

한계성 극복하고 통일단결의 대의아래 학자투 완수를...

김성규(사학4) 군은 「일단 학우의 힘으로 무사히 선거를 마무리 할수 있었던 것에 감사사를 드리며, 선거시의 여러문제를 풀고 학자투쟁을 끌어갈 사람으로서 어깨가 대단히 무겁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21대 총학은 「구국의 횃불」과 하나된 몸짓으로 통일조국의 신생애를 노래하라! 그대 자주투쟁아! 라는 슬로건이 보여주듯 통일단결의 대의아래 공동집행부 구성을 통한 학자투쟁 완수, 노태우퇴진투쟁, 조국통일촉진투쟁을 가장 큰 사업계획으로 세워놓고있다.

「지난해 학자투쟁은 사상적인 관념적인 8개항의 구조적 투쟁과 조직건설의 부재, 하반기의 감정적인 오

**명패라도 붙여야**

○...학교당국이 지난달13일 일부 부서 직제개편을 단행했지만...

20여일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도 안내지표가 바뀌고 있지않아 여기서도 학교 당국의 행정에 뒤따른 실정에서 소홀한 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내용없이 명패만 있는것도 문제지만 아직 구색도

은 죄를 지어 양심불량중에, 양쪽의 큰귀는 국민의 의사수시 내지, 흘러버리는 우이득경(?)중, 두꺼운 입술은 애증을 불려하는 등 문서답변에 걸렸다고.

이 모든 증세로 다른사람에게 범용기 전에 일문마음과 자리를 비우고 같은 산골 흑담자(?)로 오양가심이 어

못갖춘 부서에 무엇을 기대할수 있을런지...

보통사람 사랑說(?)

○...위대한 보통사람이 현재 불치의 병으로 특출이 위태하다는 유비무신의 보도(?)

경주학생, 컴퓨터작동 많

기자석에 두고있 「전전한 선거종로 조선포야」 제하의 원고 내용중 「모우보」는 20대 총학 공명형등운원취공 개성판의 제외에도 아랑곳 않는 태도는 동약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기사가 잘못했다는 대자보가나왔으나 이에대해 필자는 2차 유세장에서 필자를 기갈명하기에 규급, 영원한 온방이라고 말했다.

이제 회회전대주 「순한글 가로글씨편의의 수운, 원고내용도 이해못한 「모우보」와 「대총대자보」 작성자」분들! 마치 동대신문 기사 전체가 잘못됐다는 식의 표현과 선거후에도 이런 파문이 인다는것이 향후 사업에 위반했었다는 야피지 않음까지요.

# “쉽게 따는 병뚜껑, 캔꼭지 하나에도 우리의 자존심이 숨쉬고 있습니다.”

무심코 따는 병뚜껑, 캔 꼭지 하나에도 우리의 긍지가 담겨있음을 아십니까?

1945년 조국광복의 감정이 온나라에 가득하던 해였습니다. 그 기쁨과 함께 순수한 민족자본으로 탄생한 해태는 우리의 상표,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우리 농민들이 땅을 갈고 정성껏 재배한 사과, 포도, 감귤등의 과일과 보리를 대량수확하여 만들어 지는 ‘해태제니텐’, ‘해태보리텐’은 농가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만큰은 외국산표어야한다는 주위의 이야기도 불구하고 우리입맛에 맞는 우리산표의 ‘해태클라’를 개발하여 한국인의 긍지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본으로 온국민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해태의 정신입니다. 우리것을 아끼는 우리민족의 기업 해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음료**

천연과일쥬스로 만든 **서니텐** 건강보리음료 **보리텐** 우리의 것 **해태클라**

#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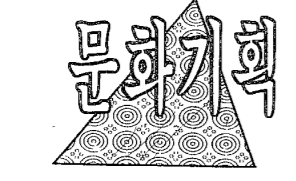
## 일본TV의 「직접 방송 위성」 통한 문화침투

지금부터 5년전에 이미 일본이 <BS-2A>라고 명명된 직접 방송 위성 (DBS: Direct Broadcast Satellite) 을 정지궤도에 진입시켰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반 가정 에 직접 일본 TV의 프로그램이 침투할 수 있게 된 셈이었다. 당시에는 지상에서 수신을 위해서는 비용이나 이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직접 수신·시청하는 사례가 극히 일부에 그쳤으나 현재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쉽게 시청

그러나 1984년 1월 23일 쏘아 올린 <BS-2A>와 그 뒤에 연이어 발사한 직접 방송 위성들 통한 문화침투현상을 특히 우려하는 이유는 DBS를 이용한 문화침투의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내린 인공 위성 수신안테나 (Parabola Antenna) 에 대한 수입자유화 조치는 앞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확산을 날개할 위험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국가간 정보흐름의 불균형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뉴이오 (New World Information Order) 라는 차원에서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제국주의로 불리워지는 선진제국 중심의 제 1 세계 국가들은 세계 정보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자신들의 주관적 관점에서 취사선택하여 다시 전세계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때 세계 4대 주요 통신사 (A.P., U.P.I., A.F.P., 로이터) 를 중심으로한 서구 선진제국의 관점에서 정보가 취합·송신되는 데 있어서 정보의 질적·양적 불균형 현상이 현저하게 지적되고 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에 들이닥친 미군 문화가 점차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하여 이제는 우리의 전통문화보다도 더욱 친밀하게 내재화한 경우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1983년 10월 4일 이후 A.F.K.N이 통신위성을 통한 직접 방송체제에 돌입하면서 미국 문화의 무분별한 직접 침투에 따른 위험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BS-2A>가 발사된 당시 예정되었던 일본문화의 우리 안방침투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이질문화의 무차별 침투라는 폐해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일본 방송문화의 안방침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상을 빚으며 남해안지역등지에서 제기된 바 있다. 잘알다시피 이 지역 일대에서는 TV안테나만 높아달면 일본 TV 프로그램의 시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일본문화의 침투 현상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여전히 갈수록 일본문화의 국내 유입 현상은 질적·양적인 차원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형편이다.

즉 그들이 중시하는 제 3 세계 국 관련 가사들은 쿠데타, 기아 지진, 질병 등 과잉하고 혐오스러운 내용 일색인 반면 제 1 세계 국 관련 가사들은 신기술 개발, 의학의 발전, 아름다운 사람 등 긍정적인 내용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사 유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자연히 제 1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제 3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문화적인 종속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제 1 세계 국가들에 의한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지배력을 점차 당연시하게되며 세계질서의 불평등 상태를 별 거꾸잡음이 받아들여져 되는 것이다.

결과 이러한 특성을 때문에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해 국경을 넘은 강대국 중심의 TV 프로그램은 제 3 세계 제국가의 안방을 마음껏 해집고 다닐으로써 문화종속의 정도를 급속도로 심화시켜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문화침투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안방침투라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 정도가 자못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정치·경제적으로 침략·지배해왔으며 그 여

# 고유문화 가치관과 괴리·문화적 종속 초래

## 일본방송전파 수신막고 지속적인 대체문화 개발해야

문화기회

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BS-2A>가 발사된 당시 예정되었던 일본문화의 우리 안방침투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이질문화의 무차별 침투라는 폐해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일본 방송문화의 안방침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상을 빚으며 남해안지역등지에서 제기된 바 있다. 잘알다시피 이 지역 일대에서는 TV안테나만 높아달면 일본 TV 프로그램의 시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일본문화의 침투 현상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여전히 갈수록 일본문화의 국내 유입 현상은 질적·양적인 차원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형편이다.

즉 그들이 중시하는 제 3 세계 국 관련 가사들은 쿠데타, 기아 지진, 질병 등 과잉하고 혐오스러운 내용 일색인 반면 제 1 세계 국 관련 가사들은 신기술 개발, 의학의 발전, 아름다운 사람 등 긍정적인 내용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사 유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자연히 제 1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제 3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문화적인 종속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제 1 세계 국가들에 의한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지배력을 점차 당연시하게되며 세계질서의 불평등 상태를 별 거꾸잡음이 받아들여져 되는 것이다.

첫째, 직접 방송 위성의 발사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므로 대부분 경제강국에서 약소국을 향해 일방적으로 흐르는데 문제가 있다. 둘째, 또는 대중전파를 발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전파속에 담긴 문화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침투한다는 점이라 하겠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일방성 (One-way Communication) 문제인데 바람직한 국가관계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two-way) 이란 차원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선별과정이 전혀 생략된 채 모든 내용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외국 문화라 해서 모두 배워야 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차 선별과정이 있다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선별성이 없다는 점이 위험하다.

넷째, 외국의 프로그램이 가정으로 직접 전달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시청 차별화를 전혀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종

파가 「문화적 종속」의 현상까지도 초래한 바 있다. 일본은 문화제국의 만능이 전세계를 종속적으로 몰아넣던 과정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그들의 철저한 침략정책에도 수탈과 수모를 당해온 바 있다. 따라서 해방이후 우리의 최대

발사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전파의 국경침투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문화의 능동적 개발과 국제 정보질서의 새로운 재정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받고 있다. 즉 처음에는 일본 방송 위성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방

▲「어제는 「야」를 치고 오늘 「어」를 친다. 극우를 나 무라는 가 하면 극좌도 주춧습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그 침묵의 의미를 제멋대로 풀어버립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공평무사한 듯하면서도 속으로는 호박씨까는 빛 좋은 개살구...」

▲문인회복사의 평양 방문을 보도하는 기성언론의 목소리라 들리고 있으나 그런만한 말의 홍수에 헛기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양심적 지식인의 신념에 찬 통일 의지가 다시 무분별한 소영웅주의가 되고, 통일 논의의 새 지평이 되었다가 한편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이적 행위도 엄중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수년을 두리위없는老夫사

의 애국충정을 이해하지만 대 북한창구의 정부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태도는 납득할 수 없지 만 정부의 강경처벌은 불가하고 따들어낸다. 그 상상을 뛰어넘는 포용력과 공명함에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죽음」

▲흔히들 언론의 생명으로 꼽는 「객관성」에서만큼은 우리나라의 언론만큼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않을 것이다. 「여」와 「야」의 중간에서, 「진보」와 「보수」의 틈바구니에서, 「정부」와 「국민」의 사이에서 어중간한 자리를 잡는, 그래서 언저라도 힘어세고 유리

한쪽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의미로 객관성이라 하면 된다. 결국 울고 웃음을 밝혀내는 양심도, 지적 야망을 용호하고 쫓아내야 할 것을 단죄하는 용기도 갖지 못한 채 기회주의적 균형감각만 모 양시·양비론을 절박의 진리인양 외고 퍼는 모순덩어리가 바로 오늘의 제도언론인 것이다. ▲시인 김수영은 말과 사 말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을 일컬어 「언어의 죽음」이라고 정의한다. 시대와 사회의 빛이요, 소금인 언론이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다면 이미 「죽은 언론」인 것이다. 언론이 거저 할 무기는 양심론과 공평론이 아닌 양심과 용기이며 울은 것을 버리고 울지 않은 것을 찾는 주체적 양심이 바로 언론의 객관성이다. 무릇 언론은 만인을 위해 싸워대야 자 유롭다. <대>

◇동아리탐방-「동굴탐험연구회」를 찾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은... 동굴 탐험은 신비하고도 위험한 모험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굴 탐험이 대중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탐방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 강원도 양양군 동굴탐험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강원도 양양군 동굴탐험연구회를 찾아가 회

관심사는 일제의 잔재청산작업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단절하고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를 근절하지 못하였고 그 화근도 다시 살아나 우리 민족의 불행은 지속시키는 요인들로 되 살아 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에 의한 재침략의 발판이 마련되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정치·경제·문화적 종속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기 까지 한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문화는 이방에 전혀 발붙이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의 영화도 아도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지 못하며 일본의 연극도 전통주의 상호교류라는 한정된 목적에 의해서만 부분적으로 열려 있을 뿐 아직은 빗장을 굳게 걸어 닫고 있다. 그 외의 모든 일본 문화현상이나 내용물들이 적어도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교류가 차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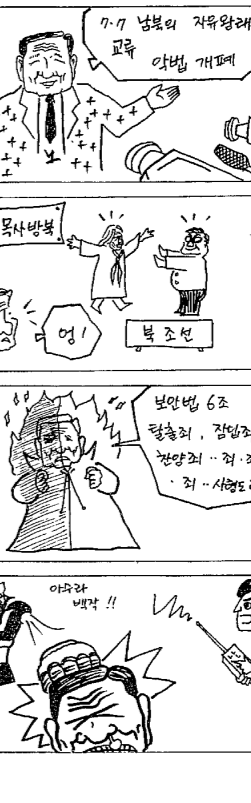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법면에서의 난립을 적절히 고려하여 전파수용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소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정한 국민수준에 이르 근도 다시 살아나 우리 민족의 불행은 지속시키는 요인들로 되 살아 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에 의한 재침략의 발판이 마련되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정치·경제·문화적 종속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기 까지 한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문화는 이방에 전혀 발붙이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의 영화도 아도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지 못하며 일본의 연극도 전통주의 상호교류라는 한정된 목적에 의해서만 부분적으로 열려 있을 뿐 아직은 빗장을 굳게 걸어 닫고 있다. 그 외의 모든 일본 문화현상이나 내용물들이 적어도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교류가 차단되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 말투기



말투기

말투기

말투기

말투기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이런 시점에서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과 우려를 감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 문화의 심각성은 이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속적인 직접 방송 위성

#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각은 뜻을 모아 큰일을 이루는 한올그룹의 기업정신이 산업전선에 걸쳐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첨단 전자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첨단 전자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첨단 전자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 룹